



59

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관지확장증 및 폐기종

성별	남	나이	44세	직종	용접 작업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임○○(남, 44)은 1998년 9월 G금속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을 한 후 2003년 7월 B의료원에서 기관지확장증, 폐기종 및 심장이 원인이 아닌 흉통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임○○은 40세 때인 1998년 9월 1일부터 G금속에 공장장 겸 용접공으로 입사하여, 국자 등의 손잡이와 나머지 부분을 스텐레스 철사를 이용하여 Argon 용접작업을 하였다.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작업하였지만 작업량은 변동이 많았는데, 작업이 있을 경우 일용 용접공을 고용하여 2~3명이 하루 평균 700~800개 정도 작업하였으며 임○○은 약 200개 정도 작업하였고 사업주에 의하면 월 평균 20~25일 정도 작업하였다 한다. 과거 외판원, 의류 보세공장 보조 등의 일을 하다가 22세 때부터 용접하기 시작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임○○은 22세 때부터 하루 반 갑 정도씩 흡연하였고, 16세 때 폐결핵으로 3개월 간 치료하였다. 2002년 6월경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약국에서 투약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03년 6월 5일 B의료원 내과에 입원하여, 운동부하



심전도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‘기관지확장증, 폐기종, 심장이 원인 이 아닌(non-cardiac origin) 흉통’으로 진단받았다. 재관독한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우 상엽의 폐실질 섬유화와 traction type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있고 좌상엽의 석회화 육 아종 소견이 있고 양측 상엽의 paraseptal 폐기종 소견이 있었다. 기관지확장증 부위 는 과거 폐결핵에 의한 폐실질 섬유화 소견이 있는 부위와 일치하고, paraseptal type 의 폐기종은 염증 후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소견 역시 과거에 앓았던 폐결핵의 2차적 소견으로 판단된다. 또한 2000년도에 좌측 9번째 및 10번째 늑골이 골절되었 던 병력이 있는데, 늑골 골절은 늑골이 완전히 융합된 후에도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가 많다. 한편 2004년 2월 11일의 폐기능검사서 노력성폐활량/일초량/일초율 모두 정상이었다.

4 결 론

임○○은

- ① 기관지확장증 및 폐기종으로 요양신청하였지만,
 - ②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과거 앓았던 폐결핵 소견과 일치하는 부위에서 그 후 유증으로 판단되는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나타났고,
 - ③ 폐기종 역시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과거의 폐결핵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 는 한편,
 - ④ 현재 폐기능검사상 기도 폐쇄 소견이 없으므로,
-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었다.